

유통관리사+무역영어= 무역유통전문가 자격의 완벽한 조화

이용수 / 유통관리사 2급, 무역영어 1급



중장년 재취업 장벽을 뚫어라

창밖으로 푸른 가을 하늘과 하얀 구름이 멋들어지게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화창한 가을날입니다. 마치 회사 업무에서 제가 취득한 상공회의소 자격증들이 실무적으로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정말 기분 좋은 가을날의 연속이네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며 2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고, 대학에서 무역학을 전공하여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해서도 무역(수출입)분야 회사에 취직하여 23년째 직장인 생활을 하고 있는 이용수입니다.

40대 초반까지 제약회사 해외사업부서에서 근무하다가 회사 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된 후 유사업종의 재취업 자리를 다방면으로 알아보았지만 맞닥뜨린 현실은

정말 녹록치 않았습니다. 우리 사는 사회는 이미 40대가 넘으면 중소기업체에서도 경력직원으로 재입사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에 그동안의 직장경력 이외에 남들과 다른 경쟁력으로 제 자신을 좀 더 부각시킬 수 있는 공인자격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여러 가지 자격증을 알아보던 중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유통관리사와 무역 영어 자격시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학으로 6개월 정도 나름대로 공부하였지만 막상 시험 준비를 하다 보니 해당 자격시험의 수준이 결코 만만찮은 Level임을 알게 되어 내심 염려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기출 문제집과 온라인 정보 등을 충분히 활용하여 더욱 열심히 시험 준비에 박차를 가하였고, 중장년층 특유의 인내심과 응용력을 무기 삼아 자격시험 준비에 정진한 결과 수원 상공회의소에서 진행하는 2개의 시험을 각각의 일정에 맞추어 모두 차분하게 치러냈고 그 결과는 2개 시험을 단번에 합격을 해서 유통관리사 2급과 무역영어 1급 자격증을 모두 비슷한 시기에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위의 2가지 자격증은 해외에서 다양한 물품을 수출입하여 국내 시장에 유통 거래하는 회사에는 매우 유용한 자격증으로서 자격증 상호간에 실무적인 연관성도 많이 갖고 있어 수십 년간 무역 업무를 담당하던 저에게는 상당한 효용가치가 있는 자격증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어쩌면 이 부분이 저에겐 참으로 행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해당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다시 취업할 회사를 다방면으로 알아보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취업관련 사이트를 통해 수많은 기업체에 취업문을 두드리다보니 용인에 위치한 현재 근무 중인 회사인 (주)신일FAS에서 면접 연락을 받게 되었고 실무 면접 자리에서 그동안의 무역업무 경험에 덧붙여 많은 노력을 통해 취득한 유통관리사와 무역영어 자격증을 보여주며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강조한 결과 감사하

게도 그 어렵다는 중장년 재취업의 장벽을 뚫고 무난하게 입사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유통관리사-무역영어 시너지로 업무성과 향상

현재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현대/기아자동차, 현대제철 등의 대기업 생산제조 설비에 필요한 다양한 기계류의 보전 자재들을 독일/미국/일본 등지에서 수입하여 납품하는 유통전문 1차 협력업체로서

제가 주력으로 담당하는 업무가 외자수입 및 발주처 납품 물류 유통 업무이기에 유통관리사와 무역영어 자격증이 적절히 조화롭게 활용 될 수 있었고, 20여년의 무역실무 경험이 함께 어우러져 매년 회사내에서 우수한 업무성과를 기록하며 3년째 재미있고 보람차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의 공인된 자격증은 취업대상 회사로 하여금 대외 공신력과 채용 대상자의 업무능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주었기에 재취업 성공과 무역/유통관련 실무능력 향상에 모두 도움이 되는 2마리의 토끼를 잡은 셈이 되었습니다.

아무췌록 이러한 저의 경험이 향후 유사한 업계에 진출하고자 하는 후학들에게 귀감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도 가져봅니다. 이 자리를 빌어 40대 후반의 나이에든 꾸준히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준 자격증의 발행 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분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유통관리사 + 무역영어 = 무역유통전문가 파이팅!!!